

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, 신서면 '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'

오연근 기자 발행일 2023-05-04 제17면



한국농어촌공사 연천·포천·가평지사(지사장·최재철)는 지난 2일 연천군 신서면에서 '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'을 개최했다.

이날 봉사활동은 농어촌공사가 다솜복지재단과 협력해 농촌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진행됐다. 임직원들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방문해 노후된 현관 및 방문 교체, 벽지 도배 등을 지원했다.

최재철 지사장은 "직원들의 작은 노력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으로 다가가길 기원한다"고 말했다.

연천/오연근기자 oyk@kyeongin.com